

‘돈 먹는 하마’ 광주 제2순환도로 관리업체

세금 한푼도 안낸다

광주시가 매년 100억원 이상의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업체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매년 적자에 시달리면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한 푼도 안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업체 지분을 100% 갖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이하 맥쿼리)가 높은 급리로 장기차입금을 관리업체에 투자하고 이자를 챙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사 맥쿼리에 고리 이자... 적자구조 고착

매년 수백억 원세 투입 불구 제재 방법 없어

광주시는 26일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수익과 보전금까지 받고 있는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큰 폭의 적자를 보고 있어 법인세 및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그동안 법인세 인하분 만큼 재정보전금 삭감을 요구해왔으나 ‘투자업체는 고수익을 올리고 관리업체는 만년 적자인 특이한’ 기업 구조 탓에 이 역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기업데이터 기업신용요약보고서와 맥쿼리 자체 자료 등에 따르면 맥쿼리는 제2순환도로 1구간에 각각 후순위 대출 352억원을 이자율 20%로, 선순위 대출 1420억원을 이자율 10%로, 모두 1903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2~5배 정도 비싼 급리 탓에 1구간 관리업체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지난 2010년 영업이익이 165억890만여원, 광주시의 재정보전금 123억6113만여원 등 모두 288억7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오히려 140억3273만여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막대한 차량통행료 수익과 재정보전금을 받으면서도 맥쿼리가 투입한 장기차입금의 고금리 이자를 물어주면서 관리업체는 세금도 못 내는 기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지난해만이 아니라 지난 2008년 143억원, 2009년 132억원 등 매년 100억원 이상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A씨는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 등 민사사업가의 대표적인

수법으로 관리업체를 내세워 수익만 챙기고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같은 방식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제2순환도로를 매입하는 방안과 도로를 운영하는 회사가 부당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그동안 맥쿼리가 자금재조달을 통해 얻은 수익을 분배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매년 200억원의 환세가 들어가는 제2순환도로를 공채를 발행하더라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했던 맥쿼리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주주차입금으로 자금조달 방식을 변경해 매년 40억원씩 시가 예산으로 더 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이라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또 강 시장은 “그동안 협상을 한다지만 했지, 상사중재나 민사소송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과 관련 자체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수문 연 승촌보 제5호 태풍 ‘메아리’로 광주·전남에서도 피해가 잇따른 26일 광주시 남구 승촌동 승촌보의 가동보(可動棼·160m) 4개중 2개가 열렸다.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메아리가 북상하면서 우려됐던 홍수 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미군기지 오염조사 지자체 뭉?

광주 광산구와 국방부가 광주 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1차 조사의 경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2차 조사는 환경부장관이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광산구는 “현재 1차 조사 당사자를 환경부장관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비용 전액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24일 환경부에 보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주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 개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루빨리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군 공항 주한미군 주둔지는 1964년 광산구 송정리 일원 595만㎡(189만 평)부지에 ‘광주 군 공항’이 조성된 후 1990년대까지 30여 년간 주둔했다. 지금도 미군 단독 사용구역 면적이 26만평에 이르고 10여 명의 미군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광산구 광주軍공항 정밀조사 요청

국방부 “법대로 지자체가 직접해야”

광산구 “국가사무 비용 국가서 대야”

광주 광산구와 국방부가 광주 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1차 조사의 경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2차 조사는 환경부장관이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광산구는 “현재 1차 조사 당사자를 환경부장관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비용 전액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24일 환경부에 보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주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 개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루빨리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군 공항 주한미군 주둔지는 1964년 광산구 송정리 일원 595만㎡(189만 평)부지에 ‘광주 군 공항’이 조성된 후 1990년대까지 30여 년간 주둔했다. 지금도 미군 단독 사용구역 면적이 26만평에 이르고 10여 명의 미군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광주·전남 큰 피해 없었다

태풍 ‘메아리’ 전국 12명 사망·실종

6월 태풍으로는 48년 만에 ‘메아리’가 한반도에 상륙했으나 광주·전남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 지난 24일부터 장마·태풍으로 발생한 사망·실종자는 전국적으로 12명에 이르렀지만 다행히 광주·전남지역 인명 피해는 없었다. <관련기사 6면>

26일 광주·전남은 강풍이 불면서 농산물과 시설물 등의 피해가 잇따랐지만 다행히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아 이날 오후 6시 현재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영산강 사업 공사 현장에도 오전 한때 관리수위(7m)에 1m 가량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물의 높이가 올라가기도 했지만 가동보와 임시물막이를 개방하면서 위험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않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장마·태풍으로 8명이 숨지고 4명 이 실종되는 등 모두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오후 밀양 산내면 용암마을 앞 하천에서 승용차가 물에 빠지면서 탑승자 5명이 모두 숨졌다. 또 뉴시를 하다 빗물에 휩쓸리는 사고 등으로 2명이 숨졌으며, 실종자는 4명이다. 영월소방서 구조대원 1명도 수색 중 순직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100편의 항공기가 결항하거나 지연 또는 끊겼다. 빗길도 끊겨 전국적으로 98개 향로 166척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제5호 태풍 ‘메아리(MEARI)’는 점차 약해져 27일 오전 북한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광주와 전남·북 지역은 흐린 후 개겠지만 28일께 또다시 장마전선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번 장마는 30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양승현기자 yang@kwangju.co.kr

전남도,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전남도가 도내 저소득층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의 1%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저소득층의 이자부담 전액을 지원해주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최하위 수준인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높은 등록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분담하기 위한 조치로, 전남도는 지난

2009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을 시작한 뒤 지난해에도 지원을 늘려 이자지원의 학생 자부담을 1~2%대로 경감시키는 등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연 가계소득 2490만원 이상 3571만원 이하인 ‘저리 1종’ 대상과 3572만원 이상 4839만원 이하 ‘저리 2종’으로 분류된 저소득층 가정이 지원 대상으로, 이들은 학자금 대출시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금리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리 전액을 전남도로부터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연 가계소득 4840만원 이상의 ‘일반 대출자’도 급리 4.9%에서 3%의 이자지원을 통해 본인은 1.9%만 부담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으로 모두 5858명에게 3억5000여만원을 지원했다”면서 “고액의 대학 등록금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일시 : 2011년 7월 4일(월)~
※매주 월, 화, 목, 금 1800 ~ (총100시간)
☎062)605-1112, 1063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THE RUBENS
진홍 더 루벤스

즉시입주가가능!

2007년 분양가 그대로!

놀라셨습니까?

진홍이 싸게 팝니다

사는것만으로도 자부심이 되는 명품아파트! 금호동 진홍 더 루벤스

전세대 49형

계약자 경품 추첨 이벤트

- 분양가 80%까지 대출가능

특별혜택

- 천정형 에어컨 및 풀옵션 무상제공
-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설계시공
- 전세대 남향 배치

문의 (062)352-9595

분양세대: 舊 49py 330세대 · 시행사: VISION (주)에스엔에스비전 · 시공사: 진홍개발(주)